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 깊이 읽기

위기로 먹고사는 자본주의를 넘어 풀뿌리 서울시의 복원을 위하여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고유한 '서울성' 찾자는 사회학자의 재촉 이상현

이명박 시장이 당선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서울은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청계천 복원공사를 진행중이며, 강북을 강남처럼 만들어 버리겠다고 여기저기 재개발 계획을 남발하고 있다. 신중하게 따져보고 도입해야 할 새로운 대중교통체계를 사전에 충분한 대책도 없이 덩그러니 시행했다가 애꿎은 시민들만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커다란 변수는 앞으로 서울의 운명을 또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홍성태 교수의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는 역사의 흔적과 상처가 아로새겨진 대도시 서울을 독해하는 책이다. 홍 교수의 도시 독해는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의 근대도시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다. 짐멜이 근대도시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도시가 새로운 발현적(emergent) 특징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짐멜이 말하는 새로움이란 근대성이다. 짐멜이 보기에 근대적 삶이란 외부적 행동에 의해 내부의 정신적인 삶과 느낌이 파괴되는 것(짐멜은 '객관적 삶으로부터 주관적 삶의 분리'라고 표현한다)을 의미한다. 즉, 주관적인 정신이 객관적인 정신에 의해 지배되며 개인적인 문화는 왜소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근대성의 문화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대도시였던 것이다.

홍 교수가 도보로 걸어나가면서 자신의 고향, 대도시 서울에서 발견한 새로운 발현적 특징은 식민지 경험과 군사독재로 인해 뒤틀러버린 기형적인 근대성이다. 이 기형적 근대성을 초래한 한국의 근대화는 서울을 시민의 도시가 아닌 난민의 도시로, 가로수보다는 전선이 더 우선시되는 반생태적 도시로, 사람보다는 자동차를 더 먼저 생각하는 반인간적 도시로, 역사를 재해석하고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몰상식하게 파괴하는 반역사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

서울은 세워진 지 600년이 넘는 역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서울의 고유한 특성이 다 없어지는 변화를 겪고 말았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주범은 일제의 식민지적 근대화와 박정희를 필두로 한 군부독재 세력들의 자기 과시적 난개발이다. 식민지 근대화와 자기 과시적 난개발은 특정한 장소에 깃들어 있는 역사적 의미, 문화적 특성, 생태적 속

자본주의는 위기가 만성적으로 재발하지만, 늘 이 위기를 돌파해 가면서 성장한다. 자본주의가 위기를 돌파하는 기본적 수단은, 앙리 르페브르가 지적했듯이 '공간'이다. 자본주의는 기존 공간의 파괴와 새로운 공간의 건설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 가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자본주의는 대단히 지리적인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지리적 기획이라면 우리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도시를 독해함으로써 여러 가지 모순과 위기의 징후를 발견하고, 저항의 실마리도 찾아낼 수 있다.



### 이 글을 쓴 이상현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녹색미래 사무처장, 상지대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산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세상을 움직이는 물·물의 정치와  
 정치생태학》이 있고, 논문으로는 〈The Discursive  
 Politics of Water: Interurban Struggles in the  
 Nakdong River Catchment in South Korea〉,  
 〈칼 비트포겔 수력사회론 재해석과 실천적 함의〉 등이  
 있다. 환경정책학, 환경정치학, 정치생태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성들을 깡그리 무시한다. 그 결과 세종로에는  
 충무공 동상이 서 있고, 사직단에 율곡 선생  
 과 신사임당의 동상이 자리잡았으며, 눈에 거  
 슬리는 산동네들이 불도저에 의해 사라지고,  
 세운상가가 서울의 녹지축을 뭉텅 잘라먹고  
 서 있는 것이다.

책의 부제는 '홍성태의 서울만보기'다. '만보  
 漫步', 즉 어슬렁거리며 걷는다고 되어 있지  
 만, 실제로 홍 교수는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  
 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반역사적, 반문화적,  
 반생태적 개발의 현장을 고발하고 다닌다. 그  
 런데 이 고발이 건조하지 않다. 홍 교수는 사  
 회과학적 분석뿐만 아니라 대중가요와 텔레  
 비전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풍수지리와 숨겨  
 진 야사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함으로써 이 고  
 발을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흥미진진하다고 그의 분석 혹은  
 독해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의 발길과 눈길이 닿는 곳마다 슬픔과 탄식  
 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물에 대한 애  
 정이 풍부한 탓인지, 그는 전선을 보호하느라  
 줄기까지 땀겨 잘라내는 가로수 정비사업을  
 참수형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  
 현방식 때문에 책을 읽어가는 동안 필자 역시  
 마음이 무거웠고, 지금까지 범상하게 지나친  
 서울의 골목골목이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다.

홍 교수의 서울 독해가 건조하지는 않  
 았지만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다소 지루한

측면도 있었다. 이것은 홍 교수의 서울 독해  
 가 대체로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지, 아니면 기형적인 근대화론 인해 서울 모  
 든 곳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드러난 탓인지는  
 잘 모르겠다. 서울 어느 곳에 가도 일단 홍 교  
 수의 시야에는 하늘과 가로수를 가로막는 전  
 붓대와 전깃줄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좁은  
 골목길뿐만 아니라 역사적 유물 앞에도 널려  
 있는 쓰레기봉투가 악취를 뿜으며 그의 미간  
 을 찌푸리게 한다. 호객을 위해 가게에서 도  
 로에 설치해 놓은 스피커에서 마구 쏟아져 나  
 오는 음악과 공사장 소음, 그리고 어지럽게  
 널려 있는 간판에 대해서도 그는 대단히 비판  
 적이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편하게 건널 수  
 있는 건널목 대신 자동차의 운행을 중시하여  
 지하보도나 육교 중심으로 짜여진 도로체계

는 그의 일관된 공격대상이다. 전깃줄, 쓰레  
 기, 소음과 간판, 건널목 없는 도로. 이 네 가  
 지가 그의 서울에 대한 비평적 독해의 중심  
 키워드인데,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그가 돌아  
 다닌 거의 모든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한 개의 장 안에서도  
 앞에 쓴 내용이 뒤에서 또 반복되는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이런 반복은 서울의 여러 곳  
 에 대한 그의 해박하고 흥미진진한 해설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다소 지루하게 만들 위험성  
 이 있었다. 사소한 실수도 발견되었다. 타워  
 팰리스 사진을 찍을 때 겪었던 경험담을 각주  
 에 수록하면서 바로 다음 쪽의 사진 설명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글이 들어갔다(136쪽과  
 137쪽).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달동네〉라는 드라마에 출연  
 한 사람은 정윤희 씨가 아니라 장미희 씨다.

결국 필자가 보기에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수도가 아닌 하나의 지역으로서 서울의 정체  
 성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든다는 점이다.  
 즉, 식민지 근대화와 군사독재의 자기과시적  
 난개발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대도  
 시 서울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고유한 서울성  
 (seoulness)에 주목하고, 이것을 복원하자고  
 우리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은 수도이  
 기 이전에 하나의 풀뿌리 지역이다. 이제 풀  
 뿌리 지역으로서 서울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  
 야 할 큰 사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여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한글서체**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 홍성태 지음 | 390쪽 | 3900원 | 값 15,000원

